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Use of Public Libraries

이 승 민 (Seungmin Le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 및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주로 개인적인 정보활동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나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정보활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나 의견 교환으로 연결되면, 이는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호혜적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사회적인 책무를 고려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in order to prove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se of public libraries is generally focusing on information activities on a personal level and it is not extended to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or form social trust between people on social level. I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are expanded to share information and opinions with other people, however, it can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across people mediated by public libraries. It also has the possibilities to induce library users to participate reciprocal activities on social level. As a result, the information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on personal level can be extended to social levels mediated by public libraries, which can affect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results, public libraries need to consider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n creating social capital as well as supporting information activities of members of society.

키워드: 사회자본, 공공도서관,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호혜

Social Capital, Public Libraries, Social Network, Social Trust, Reciprocity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ableman@sookmy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6년 5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6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6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9-50,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02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이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도서관은 소장자료의 단순한 이용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 확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정보활용도를 높여주는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도서관은 소장자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기관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정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이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온 근본적인 기능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단순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여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를 통해 정보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정보적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이 정보의 활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확보,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차원을 넘어 정보의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각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정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도서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장자료 중심

의 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공유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활용 방식의 변화로 인해, 도서관은 정보의 집적소라는 정적인 기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동적인 기관으로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커뮤니티 센터로의 전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모색해 왔으며, 공공의 장소로 그리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 중심으로의 도서관의 기능 변화는 도서관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인적 관계 및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 개인 혹은 집단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잠재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Bourdieu 1983).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 사람들 사이의 호혜성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개방된 사회적인 공간이며(Varheim 2009), 도서관의 근본적인 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Aabø 2005: Public Agenda 2006). 이와 함께, 도서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다(장우권, 박성우 2012, 379). 이는 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온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을 고찰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도서관의 대부분의 기능은 정보 및 정보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자본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이나 기능 역시 정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도서관의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도서관, 특히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계층의 이용자에게 개방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지, 사회적 기관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경제학, 사회학, 문헌정보학 등의 분야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기관들과 사회자본을 연계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지닌 여러 가지 측

면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에서의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자본의 이론을 도서관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 측면에서 도서관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일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우, 장우권(2009)은 Grootaert and Bastelaert(2001)가 제시한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에 대한 구분을 응용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거시적-구조적 측면(공공도서관의 법률 및 정책), 거시적-인지적 측면(문화 및 거버넌스), 미시적-구조적 영역(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관계망의 형성), 미시적-인지적 영역(개인 개발 영역)의 4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정재영, 장정호(2007)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trust),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호혜성(reciprocity)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 창출과의 관계를 매커니즘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와 사서 사이에 관계적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연결망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사람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커뮤니티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호혜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하고 보상에 대한 즉각성이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호혜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성우(2014)는 사회자본 형성의 주요 요소인 신뢰, 사회 연결망, 호혜성 사이의 관계를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제도적 중재기관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라는 환경 내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양상을 확인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 형성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유형이나 도서관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양상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외의 연구는 대부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영향 및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Kranich(2001)는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llenbrand(2005)는 공공도서관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성을 추적하였다.

Varheim(2007)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

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공공도서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한 비공식적이고 개방된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일반 대중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Gong, Japzon, and Chen(2008)은 공공도서관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공공의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사회자본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적인 분리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교량적 사회자본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사회적인 모임의 장소 및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도서관에서 사회자본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도서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혹은 사회자본과 도서관 사이의 실제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자본의 형성과 도서관 사이의 실제적인 관련성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의 의미

현재 사회자본은 경제학, 사회학, 문헌정보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Granovetter, Bourdieu, Coleman으로부터 정립되었으며, Putnam 등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며(심홍진, 황유선 2010, 332), 따라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한 마디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urdieu(1983)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개인적인 연결망 혹은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무형의 사회적인 자본이며(최윤정 2008),

한 개인이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미선, 이종혁 2012, 17-19).

이와 유사하게,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 내재된 유형·무형의 자원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Coleman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개인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이며, 물질적으로 독립된 자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본인 것이다. Paxton(2002) 또한 사회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회적 행동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인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개인적인 수준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Putnam은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등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이나 집단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사회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사회의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Putnam(2002)은 사회자본을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Granovetter의 사회자본 분석(Granovetter 1973)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량적 사회자본은 Granovetter의 약한 유

대관계와 대응되는 것으로,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강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결속적 사회자본은 Granovetter의 강한 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지만, 상호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강한 정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심홍진, 황유선 2010; Hoffmann, Hoelscher, and Sherif 2005).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Lin 2001, 21; Putnam 2000),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무형의 자본이며,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성우 2014; Alder and Kwon 20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개인들 또는 특정 집단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유형·무형의 이득이 생긴다는 개념이다(박성우, 장우권 2009). 따라서, 사회적 관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자본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Burt 1997; Lin 2001).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개념이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에 대한 접근 역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뢰,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의무감, 호혜성, 믿음,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소로는 호혜성,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2.2 도서관과 사회자본

도서관의 유형과 형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해 왔지만, 사회적 기관으로써의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 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서관이 담고 있는 무형의 지식 자산은 사회적 자산인 공공재로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중추가 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Debono 2002, 80).

사회자본 측면에서의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개방된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관이며,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이다(Varheim 2009, 374). 또한, 공공도서관의 존재 가치는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지적 자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자본의 창출에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되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Kranich 2001).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장우권, 박성우 2012, 37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사서 등과 같은 인적 자본이 소장자료 등의 물적 자본을 이용해 운영되는 기관이며, 사서와 이용자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도서관 내의 신뢰 형성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크게는 사회 전체의 신뢰 형성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도서관 내에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는 다양한 개인이나 단체들 사이의 관계 또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정보적 프로그램은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각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형성해 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약한 유대관계와 강한 유대관계를 포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혜성의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은 이용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보활동을 지원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 차원에서의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정보적·사회적 활동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사회봉사의 참여 등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호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Goulding 2004),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사회적 호혜성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정보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과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회자본 측면과 도서관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기준으로, 도서관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및 상호 신뢰,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

지는 사회봉사 참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도서관 측면에서는 크게 도서관 이용도, 도서관에 대한 신뢰, 도서관 이용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이러한 각각의 사항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자본이 확충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 사이의 상호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항목은 공공도서관 측면과 사회자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자본 측면은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3.2 분석 방법

설문 조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0대를 제외한 이유는 임시준비 등의 이유로 10대의 도서관 이용이 도서관 내에서의 자가학습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문 대상자 160명에게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21부를 제외한 총 139부의 설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 신

〈표 1〉 설문항목 구성

항목	구분	설문항목
일반사항		연령
		성별
		직업(정규직, 계약직, 무직)
도서관 측면		도서관 이용 빈도(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이용 목적(도서관 이용 목적)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도서관 소장 정보자원의 활용 정도(도서관 정보자원 활용)
사회자본 측면	신뢰	도서관 구성원과의 다양한 정보 및 의견 교환(정보 공유)
		도서관을 통한 구성원과의 신뢰 형성(구성원과의 신뢰 형성)
	사회적 네트워크	도서관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구성원과의 상호 교류)
		도서관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만남(구성원과의 교류 지속)
	호혜성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참여(사회봉사활동 참여)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참여(커뮤니티 참여)

뢰도를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분석 대상 데이터의 Cronbach's α 값은 .64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적 분석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64명(46.0%)과 여자 75명(54.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91명(65.5%), 30대 24명(17.3%), 40대 19명(13.7%), 50대 5명(3.6%)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의 직업은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을 분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대학 재학생, 정규직, 계약직, 무직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92명(66.2%), 18명(12.9%), 22명(15.8%), 7명(5.0%)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4.2 공공도서관 이용 분석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이용 목적,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도,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참조).

도서관 이용 빈도는 주간, 월간 단위 기준의 이용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 대신, 설문응답자 개인이 느끼는 도서관 이용 빈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괄적인 이용 수치보다는 각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총 40명(28.8%),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25명(18.0%)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자원의 활용도

〈표 2〉 인구통계적 분석 결과

	구분	N	비율(%)
성별	남성	64	46.0
	여성	75	54.0
연령	20대	91	65.5
	30대	24	17.3
	40대	19	13.7
	50대	5	3.6
직업	대학 재학생	92	66.2
	정규직	18	12.9
	계약직	22	15.8
	무직	7	5.0

〈표 3〉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1	39	74	21	4
비율(%)	0.7	28.1	53.2	15.1	2.9
공공도서관 소장 정보자원 활용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41	75	18	4	1
비율(%)	29.5	54.0	12.9	2.9	0.7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구분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			→ 정보 활용 목적	
N	14	16	25	58	26
비율(%)	10.1	11.5	18.0	41.7	18.7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신뢰 형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35	58	34	10	2
비율(%)	25.2	41.7	24.5	7.2	1.4

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소장된 정보를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자가 총 116명(83.5%), 자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총 5명(3.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 또한 정보자원의 활용 또는 도서관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일반 대중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혹은 정보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사회자본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발생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을 정보적인

측면과 참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총 26명(18.7%)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가 주된 목적인 이용자는 총 14명(10.1%)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소장자료 이용의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총 84명(60.4%)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참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30명, 2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주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하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에는 사서의 활동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사서에 대한 신뢰 등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사서에 대한 신뢰를 통한 도서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구성원 중 하나인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이용자와 도서관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35명(25.2%)의 응답자가 사서와의 신뢰가 매우 높게 형성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총 58명(41.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에는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보다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입수 및 활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분석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며,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4.3.1 사회적 네트워크

공공도서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및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는 답변이 총 67명(48.2%)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장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하지만,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 혹은 공공도서관 이용 중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총 27명(19.4%)으로 나타난 반면,

〈표 4〉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8	59	47	23	2
비율(%)	5.8	42.4	33.8	16.5	1.4

부정적인 답변은 총 93명(66.9%)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교류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 형성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않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교류는 개인적인 정보활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3.2 신뢰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자본 측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형성된 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

이의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7명(48.2%)의 응답자가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총 17명(12.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활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 이외의 사회적 측면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신뢰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 및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총 104명(74.8%)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총 10명(7.2%)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정보의 활용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

<표 5>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 유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0	27	19	40	53
비율(%)	0.0	19.4	13.7	28.8	38.1

<표 6>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4	13	55	59	8
비율(%)	2.9	9.4	39.6	42.4	5.8

〈표 7〉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 및 의견 교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15	89	25	9	1
비율(%)	10.8	64.0	18.0	6.5	0.7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정보의 공유 혹은 의견 교환 역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 활동 측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신뢰 확보 등 사회적인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3.3 호혜성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활동 중심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호혜적인 영향이 사회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해당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슈 혹은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로 이어진다는 응답자는 총 55명(39.6%)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총 39명(28.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활동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정보활동의 수준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호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실증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9〉 참조). 분석 결과, 총 80명(57.5%)의 응답자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

〈표 8〉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 참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11	44	45	35	4
비율(%)	7.9	31.7	32.4	25.2	2.9

〈표 9〉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봉사 참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N	22	58	36	17	6
비율(%)	15.8	41.7	25.9	12.3	4.3

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3명(16.6%)의 응답자만이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사회봉사 참여가 무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주로 개인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정보활동은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호혜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사회자본 형성과의 관계 분석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각 개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사회 전체적인 수준 혹은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도서관 이용의 방식에 따라 사회자본 형성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이용의 여러 가지 측면이 사회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과의 관계 및 교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의 여러 측면 가운데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23$). 이를 통해 보면,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 개인의 정보활동을 위해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정보자원의 활용을 매개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도서관 이용 빈도나 도서관 소장 자료의 활용 정도, 도서관 이용 목적 등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 여

〈표 10〉 공공도서관 이용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468	.730		4.750	.000
도서관 이용빈도	-.085	.130	-.057	-.653	.515
도서관 이용목적	-.078	.103	-.064	-.754	.452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234	.102	-.195	-2.296	.023
도서관 정보자원 활용	-.001	.127	-.001	-.009	.992

a. 종속변수: 구성원과의 상호 교류

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이용의 여러 가지 측면이 도서관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표 11〉 참조).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이용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 및 이들 사이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p=.008$),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도서관 이용 빈도 혹은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도 등은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구성하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공공도서관 이용 이외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근본적인 기능은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사회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이 사람들 사이의 정보의 공유 및 의견 교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 및 의견 교환을 통한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12〉 참조).

〈표 11〉 도서관 이용과 사회적 신뢰 형성과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24	.540		4.306	.000
도서관 이용 빈도	-.043	.096	-.039	-.450	.654
도서관 이용 목적	.207	.076	.227	2.706	.008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100	.075	-.112	-1.333	.185
도서관 정보자원 활용	.091	.094	.083	.973	.332

a. 종속변수: 구성원과의 신뢰 형성

〈표 12〉 도서관 이용과 정보 공유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85	.472		5.048	.000
도서관 이용빈도	.033	.084	.034	.398	.691
도서관 이용목적	-.040	.067	-.049	-.597	.551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059	.066	.074	.897	.371
도서관 정보자원 활용	.281	.082	.289	3.427	.001

a. 종속변수: 정보 공유

〈표 13〉 도서관 이용과 사회봉사 참여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718	.399		9.315	.000
도서관 이용빈도	.004	.071	.005	.060	.953
도서관 이용목적	-.116	.056	-.171	-2.054	.042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054	.056	-.080	-.965	.336
도서관 정보자원 활용	.174	.069	.213	2.511	.013

a. 종속변수: 사회봉사 참여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과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p=.001$). 즉,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교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의 공유 혹은 의견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활동이 도서관 구성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정보적·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 활동은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개인이 생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자본의 유형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커뮤니티에 대한 호혜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유지·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기능이자 사람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이 되는 정보의 활용이 사회적인 호혜성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이 사람들을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 소장 정보자원의 이용과 사회봉사에의 참여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p=.013$).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많이 일어날수록 사회봉사에의 참여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42$).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 활용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적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정보의 공유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봉사라는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5 공공도서관 이용과 사회자본의 형성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 이용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정보활동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상호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활동을 위한 정보의 공유나 의견의 교환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 과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형성된 관계를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장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면과 연결시켜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이들 사이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호혜적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교량적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속적 사회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자원의 활용이나 정보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이는 사람들의 사서에 대한 신뢰, 도서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전체적인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등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커뮤니티에의 참여, 사회봉사 등의 참여 등 호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나 의견의 교환 등 상호 교류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활동이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에의 참여는 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봉사라는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 소장 정보자원의 활용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커뮤니티에의 참여로 연결되며, 이러한 관계의 확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지만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수준에서의 호혜적인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에의 참여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교량적 사회자본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보환경이 변화할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무 역시 더욱 증대할 것이다.

5. 결 론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사회가 정착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하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정보와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서비스 및 정보적 프로그램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주된 기관 중의 하나이며, 사회자본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 사회적 기관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 등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주로 개인적인 정보활동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나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나 도서관 소장자료의 활용 정도 등은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이나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유지 등과 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교량적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서에 대한 신뢰, 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해 주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각 개인의 정보활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나 교환으로 연결되면, 이는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을 사회봉사에 참여시키거나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호혜적인 사회적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신뢰는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활동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근본적인 기능인 정보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고 이를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호혜적인 활동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정보활동은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의 정보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을 통한 전체적인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공공도서관 이용 이외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정보서비스의 제공 역시 공공도서관을 구성하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 교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설문항목은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기능을 사회자본의 형성 측면에서 구성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각각의 측면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 박성우, 장우권. 2009.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215-231.
- 박성우, 장우권. 2010.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과 지적자본 모형 적용 가능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233-254.
- 배 영. 200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논의의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54-81.
- 심홍진, 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microblogging service)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 트위터 초기사용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27-347.
- 윤미선, 이종혁. 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매개모델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2): 5-44.
- 장우권, 박성우. 2012. 공공도서관 지적자본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71-397.
- 정재영, 장정호. 2007. 교회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 S 교회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문화』, 26: 49-79.

- 최윤정. 2008.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2(3): 374-395.
- Aabø, S. 2005. "The Role and Value of Public Libraries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ies."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05-211.
- Alder, P. S. and S. Kwon.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89-115.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 Burt, R. 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339-365.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ebono, B. 2002.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What the Literature is Saying." *Aplis*, 15(2): 80-95.
- Gong, H., A. C. Japzon, and C. Chen. 2008. "Public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in Three New York City Neighbourhood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9(1): 65-83.
- Goulding, A. 2004.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6(1): 3-6.
- Grootaert, C. and T. V. Bastelaert.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24: 1-31.
- Hillenbrand, C. 2005. "A Place for All: Social Capital at the Mount Baker Community Library, South Australia." *Aplis*, 18(2): 41-58.
- Hoffmann, J. J., M. L. Hoelscher, and K. Sherif. 2005. "Social Capital, Knowledge Management, and Sustained Superior Performance."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9(3): 93-101.
- Kranich, N. 2001.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Library Journal*, 126(19): 40-41.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1-24.
- Public Agenda. 2006. *Long Overdue: A Fresh Look at Public and Leadership Attitudes about*

-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online] [cited 2016.5.2].
<http://www.publicagenda.org/files/Long_Overdue.pdf>.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Varheim, A. 2007. "Social Capital and Public Libraries: The Need for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 416-428.
- Varheim, A. 2009. "Public Libraries: Places Creating Social Capital?" *Library Hi Tech*, 27(3): 372-38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Young. 2007. "The New Communication Media and Social Capital: Focused on Theoretical Debates and Practical Issues in Social Capital." *Communication Theories*, 3(2): 54-81.
- Chang, Woo-Kwon and Seong-Woo Park. 2012. "A Study on the Assessment Model of Intellectual Capital of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71-397.
- Choi, Yun Jung. 2008. "An Analysis of Mass Media Use's Influence on Social Capital Based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3): 374-395.
- Jung, Jea-Young and Jung-Ho Jang. 2007.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within Churches: Case Study at S Church." *Journal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26: 49-79.
-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Jeonnam-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97-215.
- Park, Seong-Woo and Woo-Kwon Chang. 2009.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215-231.
- Park, Seong-Woo and Woo-Kwon Chang. 2010. "A Stud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Model Applicability of Intellectual Capital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233-254.
- Shim, Hong Jin and Yoo Sun Hwa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Blogging Service

and Social Capital among the Early Adopters of Twit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5): 327-347.

Yoon, Mi-Sun and Jong Hyuk Lee. 2012. “Antecedents of Social Media Use, Actual Use,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a Mediation Model.”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3(2): 5-44.